

“야구는 희생번트다”

■ 선동열 KIA 감독 취임 인터뷰

타이거즈 정신으로 근성의 야구 보여주겠다

“야구는 ‘희생번트’다. 개인을 떠나 타 이거즈라는 정신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팀을 만들겠다.”

KIA 타이거즈 신임 사령탑 선동열 감독이 근성 있는 야구, 희생의 야구로 V11을 이루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선 감독은 21일 광주 서구 내방동 기아 광주공장 연구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16년 만에 유니폼을 입게 해준 광주와 타이거즈는 내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초등학교때 처음 야구공을 잡은 뒤 지역 여러분의 성원과 지원이 있어서 몸을 풀기만 해도 상대팀에게 두려움을 주는 투수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정신력과 근성으로 압도할 수도 록 정신 무장을 하였다. V11는 멀지 않다. 코칭스태프 선수단이 훌륭한 공적에 힘입어 한다면 머지않아 현실이 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고향을 방문한 소감은 어떤가.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이렇게 광주가 가깝구나 하는 생각을 하긴 처음이었다. 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어떻게 KIA를 명문구단으로 만들 수 있을까. 외부에서 지켜봤을 때 KIA에는 젊은 좋은 선수들이 많다. 마무리 캠프 전지훈련을 통해서 젊은 선수를 발굴하는 게 급선무다. 선발 투수는 상당히 좋다. 중간이 안중인데 이번 마무리, 전지훈련을 통해서 육성을 가릴 것이다. 공격력쪽에서 테이블·중심타선은 외관상으로 좋지않지만 작전수행능력이 많이 떨어진다. 집중력있는 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것만 보완이 된다면 내년부터 정상권에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코칭스태프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은 구단과 협의를 해야 하지만 중요한 부분에서는 일본인 코치들을 생각하고 있다. 또 이 지역 출신으로 꾸릴 생각이야.

▲삼성과 팀컬러와 선수구성이 다른데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둘 것인가.

-삼성은 팀 컬러가 공격적인 팀이었는데 성적을 내지 못했던게 단기전에서 이길 수 있는 부분이 부족했다. 그래서 지키는 야구를 했고 이를 추구해서 우승했다. 삼성과는 똑같지 않게 갈 것이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한다고 하기도는 마무리 훈련을 통해서 전지훈련을 통해서 장점이 될 수 있는 쪽을 택해서 할 예정이다. 수비가 되어 공격력이 되기 때문에 수비쪽에 일단 중심을 두고 공격력을 생각하겠다.

▲선수단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올해 해왔던 시스템을 크게 변화시킬 계획은 아니다. 감독 코치가 인솔해서하는 팀보다 베테랑이 나서서 하는 팀이 더 좋고 좋은 선수가 나오기 때문에 베테랑 선수들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맞춰 나갈 생각이야.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중범아 잘 해보자” 21일 선동열 감독이 최고 참 이종범과 다정하게 악수를 나누고 있다.



선동열 KIA 타이거즈 감독이 21일 오후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선수들과 첫 상견례를 갖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V11을 향하여 ... ‘선동열호’ 출범

21일 취임 어제 1·2군 선수단 전원 참가 훈련

V11을 향한 ‘선동열호’의 항해가 시작했다. 23일 선동열 신임감독이 1·2군 선수단 전원이 참가한 마무리 훈련을 진두지휘하며 취임 이후 첫 일정을 소화했다.

준플레이오프 이후 휴식을 취해왔던 윤석민·서재용·안치홍·차일복 등 주전 선수들은 이날 체력 훈련조에 포함, 등산을 하면서 몸을 풀었다. 지난 18일부터 마무리 훈련에 돌입했던 1.5군 선수들도 무등경기장에서 기술 훈련을 이어갔다.

첫 훈련에 나선 선동열 감독은 “아직 선수들의 이름을 잘 몰라서 당분간 유니폼을 입고

훈련을 하도록 해야겠다. 유니폼 보면서 선수들 이름을 외워야겠다”는 농담을 하며 여유있는 모습을 보였다.

선 감독은 “삼성에서는 1년간 수석코치를 하면서 선수단들과 악한 뒤 감독 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지금은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입장이라서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며 “선수들과 파악하고 익히는 게 급선무다. 감독실 문은 항상 열어놓겠다”고 말했다.

선 감독은 21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배번 90번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선수단과 상견례를 가졌다.

선 감독은 선수들에게 “함께 야구를 하게 돼서 가슴이 벅차다. KIA는 개인의 팀이 아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선수가 팀이다. 팀을 위한 희생을 해야 한다”며 “프로선수로 그라운드에는 물론 그라운드 밖에서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 행동을 해주길 바란다. 또 감독 코치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베테랑이 팀을 이끌어야 한다. 선수들이 술선수범해서 이끌면 후배들이 알아서 따라준다”며 선수들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다.

‘선동열호’를 이끌 코칭스태프 구성도 발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박철우 전 KIA 코치가 선동열 사단에 합류했고, 체력·트레이닝 부분을 책임질 코치진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선 감독은 “선수들이 기초적인 체력·스트레칭 등에 대해 소홀하게 생각하는데 부상은 프로에서 중요한 부분이다”며 “선수들의 체력과 부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코칭스태프를 확대 구성할 방침이다”고 언급했다.

내달 2일부터는 일본에서 본격적인 마무리 훈련이 시작된다. 선 감독은 마무리 훈련을 통해서 2012 시즌을 위한 큰 틀을 그릴 계획이다.

선 감독은 “면담을 통해 선수들과 얘기를 나눴다. 이종범과 최희섭 등 선수들이 모두 일본 훈련에 참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선수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마무리캠프에서 육성을 가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 감독은 21일 KIA와 계약금 5억원 연봉 3억8000만원 등 총 16억4000만원에 3년간 계약을 맺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제1회 무등기 사회인 야구 6R

워리어스 8강 막차 이제부터 4강 싸움

무등기 8강 진출팀이 모두 가려졌다.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제 1회 광주전남 무등기 사회인야구대회 6라운드 경기가 23일 북구 용정동 용산 A구장에서 열렸다. 인왕리 16강전으로 펼쳐진 6라운드 경기에서 블루삭스, 버팔로스, 워리어스 화이트가 마지막 남은 8강 티켓을 획득했다.

1경기에서 삭스와 맞붙은 블루삭스가 3회 대거 6점을 뽑아내며 5회 콜드승을 기록했다. 차정환은 투런포를 쏘아올리며 팀의 승리를 자축했다.

SF와 버팔로스의 대결에서는 버팔로스가 12-3으로 역전승을 장식했다. 버팔로스는 0-1로 뒤지던 3회초 4-1로 역전극을 펼친 뒤 7회 6득점에 성공하면서 8강행을 확정지었다.

마지막 3경기에서는 워리어스 화이트가 1회부터 6점을 뽑는 등 막강 화력을 발휘하면서 5회 17-5 콜드승

을 거뒀다. 워리어스 화이트의 이승환이 5회 3점포를 날렸고, 야구파크의 선기완도 4회 솔로포를 기록했다.

6라운드를 끝으로 천왕·지왕·인왕 리그 8강 진출팀이 확정되면서 7라운드부터는 4강 싸움이 벌어진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1경기 블루삭스 0 2 2 6 4 X X -14 삭스 3 0 1 0 0 X X -4 승리투수 조진문 승리투수 차정환(4회 2점·블루삭스)
- ◇2경기 버팔로스 0 0 4 2 0 0 6 -12 SF 0 1 0 0 0 2 X -3 승리투수 정현재 승리투수 안정우(7회 1점·버팔로스)
- ◇3경기 워리어스화이트 6 1 0 0 1 0 X X -17 야구파크 3 0 0 1 1 X X -5 승리투수 김병희 승리투수 이승환(5회 3점·워리어스 화이트) 선기완(4회 1점·야구파크)

SK → KS

PO 5차전 롯데 8-4 꺾고 “삼성 나와”

박정권 연타석 홈런 MVP

‘비룡군단’이 5년 연속 한국시리즈 진출이라는 대위업을 달성했다.

SK 와이번스는 23일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플레이오프 최종전에서 박정권의 연타석 홈런을 앞세워 8-4로 승리를 거두고 한국시리즈 티켓을 거머쥐었다.

시즌 중반 김성근 감독의 중도퇴진이라는 악재를 겪었지만 SK선수들은 근성있는 플레이로 KIA와 롯데를 잇달아 물리치고 한국시리즈 무대를 밟는다. 프로야구 사상 첫 5년 연속 한국시리즈 진출이다.

SK는 정규리그 1위로 한국시리즈에 직행했던 2007년부터 4년 연속 가을야구의 주인공이 되면서 3번의 우승과 1번의 준우승을 차지했다.

‘가을 사나이’ 박정권의 진가가 유감없이 발휘된 5차전이었다. 박정권은 0-1로 뒤지던 4회초 1사 1루에서 송승준의 직구를 강타해 오

른쪽 펜스를 넘기는 역전 투런포를 쏘아올렸다. 4-1까지 달아난 6회에 바뀐 투수 부책을 상대로 연타석 홈런을 날리면서 거인 마운드를 뒤흔들었다. 박정권은 플레이오프 5경기에서 홈런 3개를 포함 8개의 안타로 0.381의 타율과 6타점을 기록하면서 MVP에 등극했다.

12년만의 한국시리즈 진출을 노렸던 롯데는 믿었던 방망이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고배를 마셨다. 롯데는 6회말 전주위의 안타와 이대호의 볼넷으로 만든 무사 1·2루에서 홍성흔의 2루타로 1점을 더한 뒤 강민호의 2타점 2루타로 4-6까지 쫓아갔다. 하지만 이어진 무사 2루의 기회에서 SK의 정대현에게 발이 튀이면서 승부수를 뒤집는데 실패했다.

극적인 승리를 장식한 SK는 페넨트레이스 1위에 빛나는 삼성과 25일 오후 6시 대구구장에서 한국시리즈 첫 대결을 벌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Llumar 루마썬팅 | 3M썬팅 | 모비스썬팅

앞유리 썬팅을 하면 열차단·자외선 차단 끝

- 자동차 앞유리 썬팅
- 자외선 차단 (기미, 주근깨, 검버섯, 예방효과)
- 뜨거운 태양 (열차단)
- 뛰어난 시야확보 (안전성)

천연가죽시트

세련된 정교함이 돋보이는 가죽시트

최저가

- ▶승용 5인기준 38만원 → 28만원 부터
- ▶RV 5인기준 40만원 → 30만원 부터

타이어 | 휠 | 경정비

한국, 금호, 넥센, 미쉐린, 수입

타이어 4짝 교체시 스노우체인 12만원 상당 무료증정(공짜)

- 알리먼트 3~5만원 무상점검
- 평상 평크 무상점검
- 타이어와 뒤 순환교체 평생 무료점검
- 브러쉬용역서액 무료증정

공짜 타이어 상담전화: 062-528-2258

광택 | 유리막코팅 | 맥과이어스 | 3M

Meguiar's

오리지널 맥과이어스 광택제 사용 “전국 최저가”

- ▶소형 25만원 → 13만원
- ▶RV 35만원 → 23만원
- ▶중형 30만원 → 18만원
- ▶수입차 40만원 → 28만원
- ▶대형 35만원 → 23만원

한국카렌드 자동차용품 백화점
 TEL. 062-521-2258 H.P. 010-9633-3535

한국카렌드가 하는 일

- 루마썬팅, 3M코팅, 모비스썬팅
- 맥과이어스광택, 코팅, 실내클리닝, 허부언더코팅
- 만도네비게이션, 아이나비, 모비스네비게이션

- 카오디오,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DMB사크안테나
- 자동차경비일체, 밧데리, 오일교환, 라이닝 기타
-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수입타이어
- 천연가죽시트, 인조가죽시트, 수입차 가죽시트제조
- 바둑방음, 천장방음, HID램프, LED램프
- 이자가카 도난경보기, 후방감지센서
- 여름상품, 겨울상품, 체인
- 모비스순정용품, 카악세서리 일체

전국 최저가 판매

- 국내최대 500평매장
- 주차장 700평 주차객정 끝

임동사거리 | 임산병력 | 허남
 임동사거리 | 신안사거리 | 임산병력
한국카렌드
 임동 자동차터미널 중간사거리(20번진)